

나주에 피어난 그림책, 마을을 잇다

 청년인소 '책이피어나주' 신지선 대표

엄마들의 작은 시작이 만든 문화공동체
아이·부모·지역 연결하는 따뜻한 플랫폼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 나주에서 그림책 문화공동체 '책이피어나주'를 운영하고 있는 신지선입니다. 저는 국어교사이자 문화기획자로, 그림책을 통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좋은 교육은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 안에서 함께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생각은 자연스럽게 그림책으로 이어졌고, 누구나 그림책 문화예술을 누리며 즐거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자는 마음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책이피어나주'에서 하고 있는 활동을 소개해주세요.

△ 책이피어나주는 '누구나 그림책 문화 예술을 누리며 즐거운 세상을 함께 만든다'는 비전을 가진 문화예술교육 공동체입니다. 2023년 세 명의 청년 엄마가 "우리 동네에도 그림책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작은 바람으로 시작했습니다.

현재 그림책을 활용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부모 교육, 학교 연계 수업, 그림책 축제, 작가 초청 강연, 그림책 순환장터, 마을 학교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림책을 단순히 읽는 책이 아니

라 세대를 잇고 지역을 연결하는 문화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니라 부모, 교사,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그림책을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림책 한 권을 통해 아이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부모는 아이를 이해하며, 이웃은 서로 연결됩니다. 문화는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드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이러한 활동은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전라남도를 대표해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나주 오면 그림책 있지"... 청년이 쓴 기적

-지역청년이 주체가 되어 문화예술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신지선 대표

△ 지역의 문화예술교육은 누군가 만들어 주기를 기다리기보다 지역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직접 만들어 갈 때 가장 큰 힘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의 역할은 지역의 필요를 발견하고 사람들을 연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우리 동네에도 그림책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작은 바람에서 시작했습니다. 거창한 계획보다 지역의 작은 필요를 발견하고 한 걸음 내딛는 용기가



청년의날 행사 모습.

지역을 변화시키는 시작이었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첫 그림책 축제를 열었던 날입니다. 준비하는 내내 '과연 사람들이 올까?' 하는 걱정이 컸지만, 행사장에는 예상보다 많은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은 잔디밭에서 그림책을 읽고, 부모들은 작가와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때 한 부모님께서 "나주에서도 이런 문화를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지금까지도 저를 움직이는 가장 큰 힘입니다.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예산도 부족했고 경험도 없었으며 무엇보다 저 자신에 대한 확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웃으며 책을 읽고, 부모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 서 문화를 누군가의 작은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이후 저희의 목표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되었습니다.

-청년을 위해 꼭 필요한 법(제도)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프로젝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지원 제도와 협업 네트워크가 더 확대되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꿈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때, 지역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독박 육아' 고민서 장관상 수상 공동체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 '책이피어나주'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는 단체를 넘어 그림책 문화생태계를 만드는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니다. 아이들은 좋은 그림책을 만나고, 부모는 함께 읽는 기쁨을 배우고, 교사는 교육의 영감을 얻으며, 지역주민은 그림책을 통해 서로 연결되는 문화. '누구나 그림책 문화예술을 누리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언젠가는 "나주에 가면 그림책 문화가 있다"는 말을 듣는 도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림책이 한 사람의 삶을 바꾸고, 그 사람이 지역을 바꾸는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 '책이피어나주'의 꿈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지역에서 무언가를 시작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주변에서는 "될까?"라는 질문을 더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작은 시작이 지역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세 명의 엄마가 시작한 작은 모임이었지만, 지금은 많은 아이들과 가족들이 함께하는 문화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청년이 가진 가장 큰 자산은 완벽한 준비가 아니라 움직일 수 있는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가능성이 정말 많습니다. 누군가 만들어 주기를 기다리기보다 내가 먼저 한 걸음을 내디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는 어렵지만 함께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도전이 또 다른 청년에게 용기가 되고, 결국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씨앗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신슬기 광주청년센터 교류협력팀

CUSTOMER SATISFACTION

고객 만족 실현을 최우선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DH Group



www.global-dh.com

 DH 글로벌